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2021. **11. 26.**(금) 10:00~12:00

명동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 일시: 2021. 11. 26(금) 10:00-12:00
-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 일정

시 간		내 용
10:00 ~ 10:10	(10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 실장)
10:10 ~ 10:40	(30분)	주제발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
10:40 ~ 11:20	(40분)	지정토론 [좌장: 권경숙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응포친 이중언어코치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정임 원장 (본동어린이집) 장흔성 센터장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준구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1:20 ~ 11:40	(20분)	종합토론
11:40 ~ 11:50	(10분)	마무리 사회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 실장)

CONTENTS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목차

주제발표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1
|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

지정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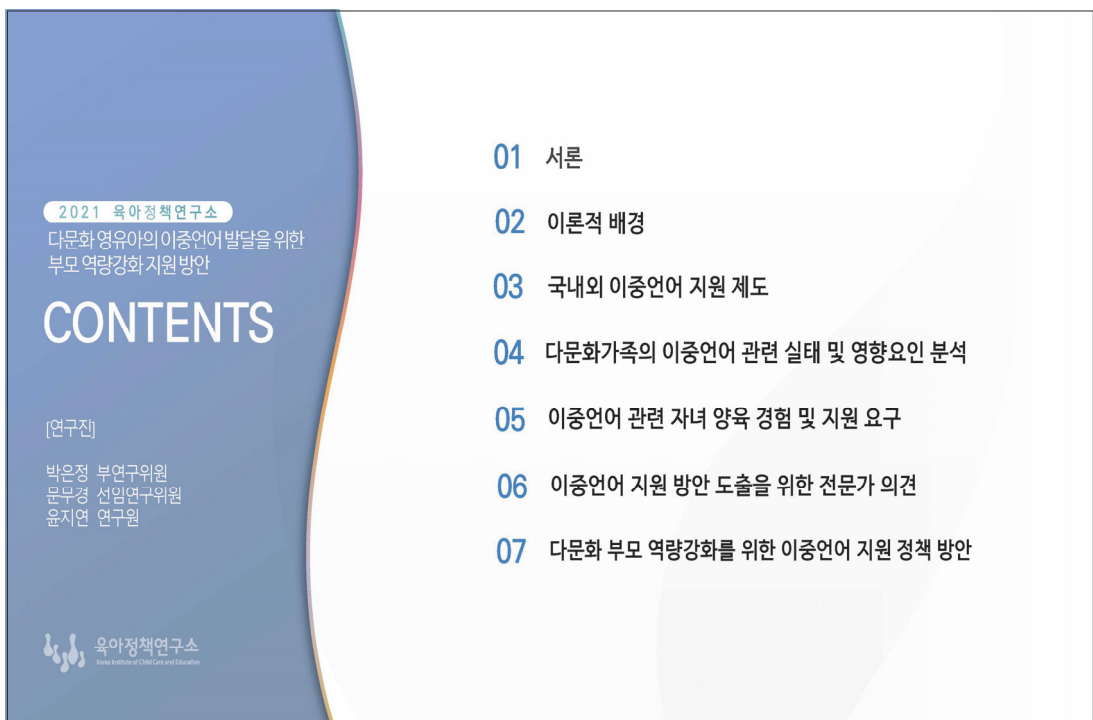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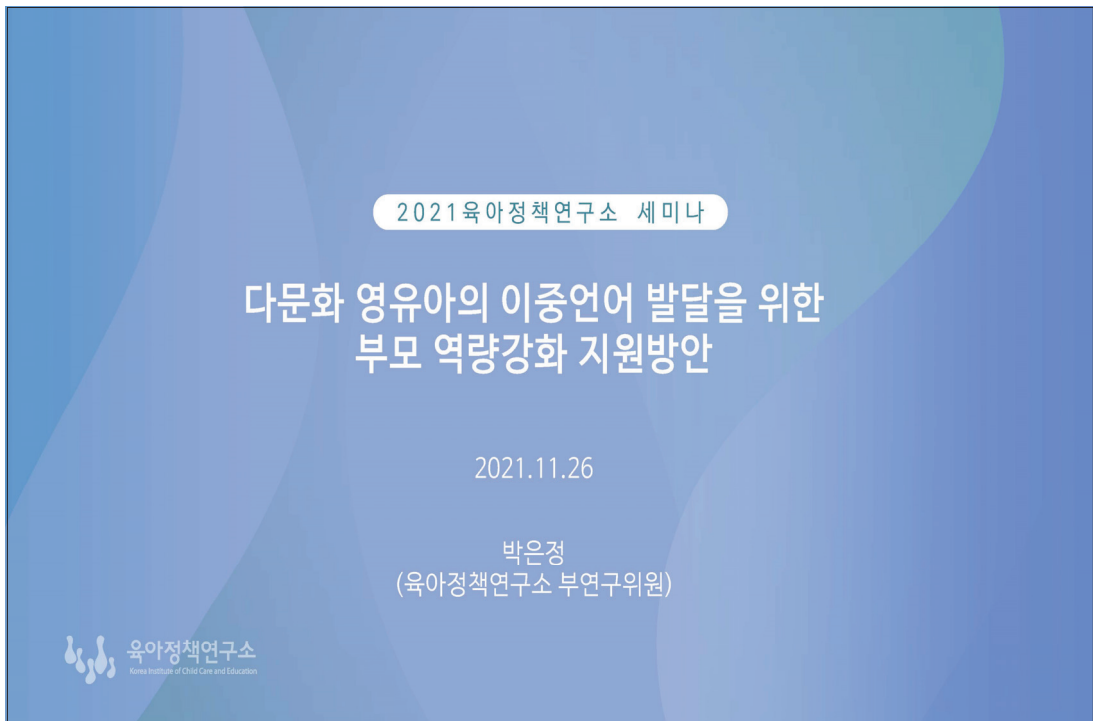
- | 응포친 이중언어코치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 김정임 원장 (본동어린이집) 28
| 장흔성 센터장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31
| 이준구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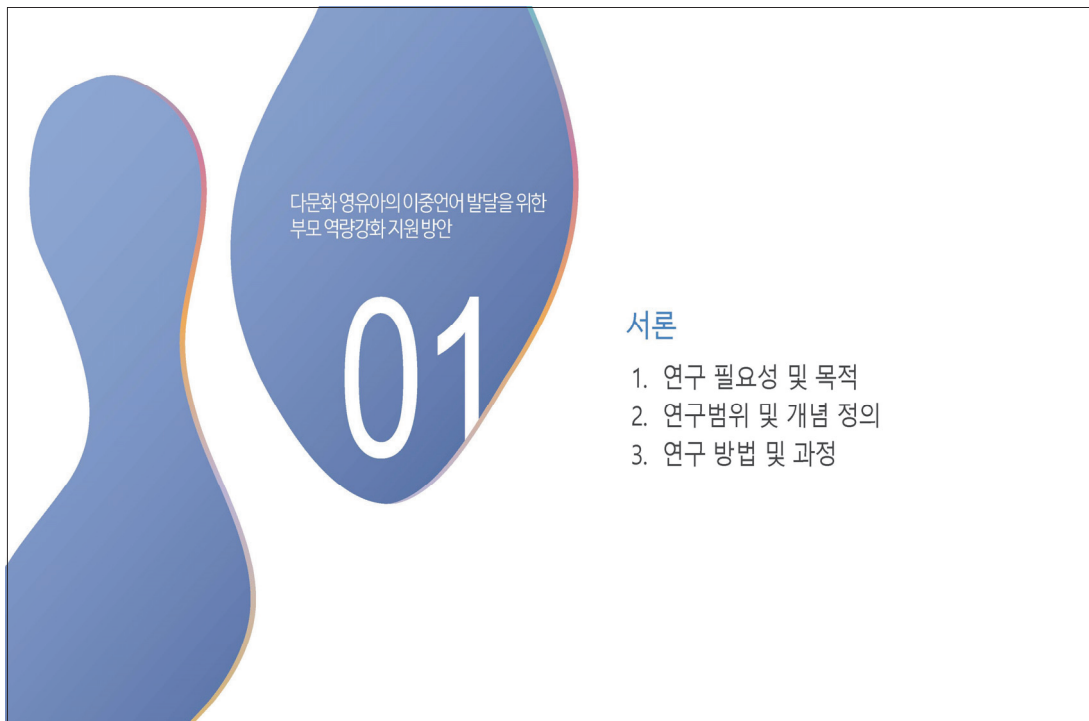
**주제
발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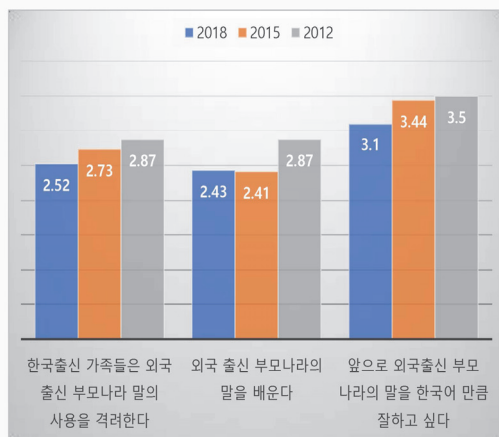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그림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 모어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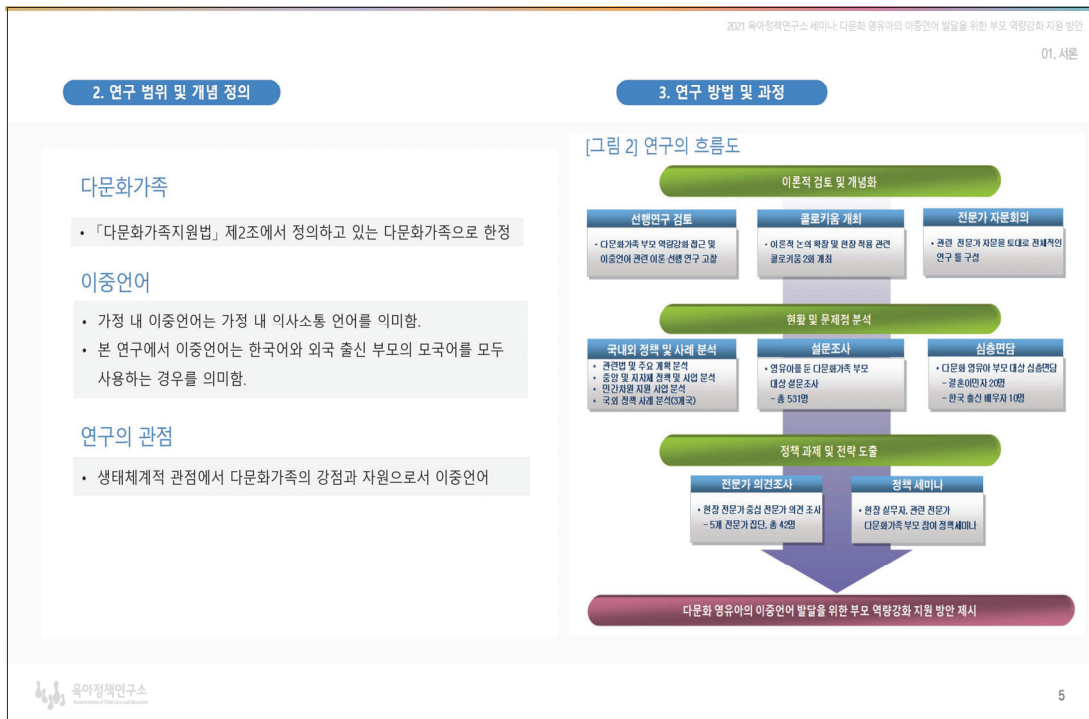
자료: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520.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가족형성 초기인 영유아기 이중언어 지원과 부모 역량 강화 중요 :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

연구목적

다문화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역량강화 관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을 진단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모색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2

이론적 논의

1. 이중언어 아동의 정의 및 특징
2. 이중언어 습득 중요성
3. 역량강화 관점

1. 이중언어 아동의 정의 및 특징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developing bilinguals)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의미함.

이중언어 아동 구분

동시적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 아동: 언어 경험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언어를 출생 직후부터 동시에 접하는 아동

순차적 이중언어(sequential bilingual) 아동: 출생 이후 단일 모국어를 습득하고 이후 제2언어를 습득하는 아동

이중언어 구사자는 일부 언어적, 인지적 또는 처리 방법들에 있어 단일 언어 구사자와 상이한 특징을 보임(Conboy, 2012).

미취학 연령 아동의 이중언어 지원

미취학 연령 다문화 아동의 가정에 대한 이중언어 지원의 중요성 확인

아동의 미취학 기간에 모국어인 가정언어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다수 언어(L2) 학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
 > 모국어의 소수 언어 유지 및 발달이 해당 언어 지원 및 강화 수준에 상응 (Campos, 1995; Hemsley, Holm & Dodd, 2010; Kohnert, 2012)

양질의 언어 습득에 대한 **지원**이 소수 언어 사용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

2. 이중언어 습득 중요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친밀감 형성

모국어(L1)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가족 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

> 부모와 아이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로 아동이 위험 행동 경향 증가(Klein, Fore-hand, Armistead, & Long, 1997)

정체성 및 긍정적인 정서 형성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주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 감소 가능성이 있음 (Anderson, 2004)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단일언어(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도래에 비해 더 높은 자존감, 가족과의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학업적 동기를 보임(Portes & Hao, 2002)

학업능력 및 언어습득 능력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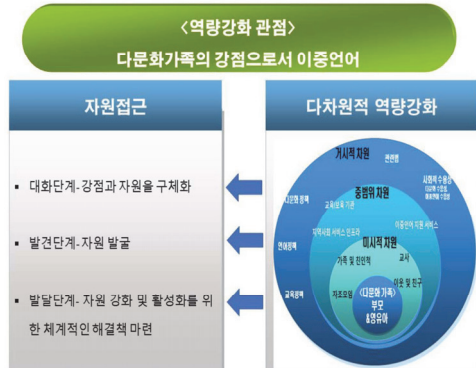
아동의 모국어에 대한 지원이 우세 언어의 학습 및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음.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취학 전 시기에 모국어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업적 성취와 우세 언어의 능숙도를 증진함.

제2언어로의 전이효과: 하나의 언어에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3. 역량강화 관점

[그림 3] 연구의 개념틀



본 연구의 역량강화 접근 관점

강점 관점과 자원접근활동을 의미

부적응 및 병리적 접근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방식

강점과 자원을 구체화하고 자원을 발굴

자원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3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제도

1. 관련법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3. 국외 사례 분석

1. 관련법

다문화 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중언어 관련 조항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3항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허용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의 성격 규정은 없음.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관련법에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 정책 예산

다문화정책 총 예산은 5,629억원에 과제는 1,210개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만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예산을 포함한 총액이기에 실제 예산은 2,404억원으로 추정(여성가족부, 2020)

예산규모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 순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315억원 증가(여성가족부, 2020)

이중언어 지원 사업

핵심적인 영유아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할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임.

[주요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 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사업 진행

전체 다문화가족 규모를 고려하면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포괄 규모가 크지 않음.

<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프로그램 이용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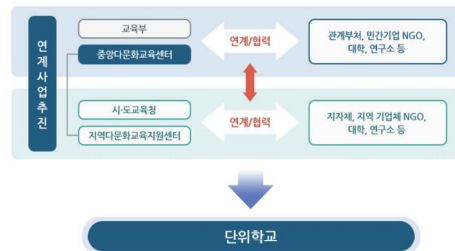
합계		이중언어_부모코칭		이중언어_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_활용프로그램		이중언어_가족코칭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3,796	19,165	789	2,096	1,760	14,031	990	2,743	257	295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100에서 일부 인용.

교육부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사업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및 이중언어 전자책 개발 및 보급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등을 실시

[그림 4]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GAAAA&bmode=view&idx=HAG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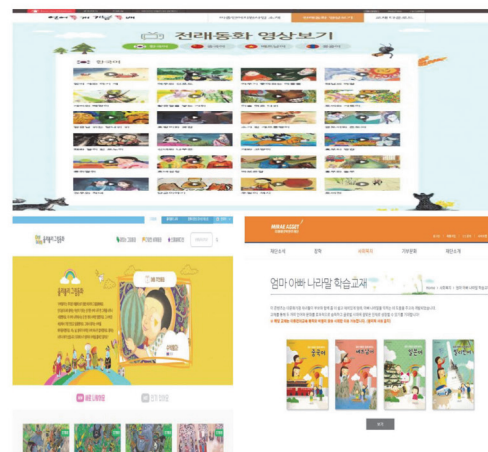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민간 기관 참여 이중언어 지원 사업

[민간 기관 사업 사례]

- 세이브더칠드런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 다음세대재단 '울리볼리 그림동화'
- 미래에셋자산투자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 영재교육'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중언어 동화집 제작'
- 재단법인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두루책방'
- LG연암문화재단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민간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순수 민간 부분이기보다는 민간 협력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자료: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s://www.sc.or.kr/happy2/intro.do>; 울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byolly.org/?wp_cartoon_new.or.php-new; 미래에셋 자산투자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https://foundation.miraeasset.com/front/socialwelfare/guide/parents.lang.dox2021.11.7.인물>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표 2> 민간기관 참여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행기관	사업/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세이브더칠드런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 사업내용: 부모 나라 양국의 언어로 된 동화를 활용하여 부모의 언어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래동화 동영상, 전래동화책, 단어카드, 부모용 교안집, 활동지 제공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 -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 그림동화	- 사업내용: 총 13개 나라의 문화가 담긴 그림동화를 주제별로 나누어 영어, 원어,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하고, 교사용 수업사례집과 활동지 제공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한국, 레바논, 르완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티베트, 팔레스타인, 필리핀
미래에셋백현주재단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 사업내용: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중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종이책 및 전자책으로 보급 - 사업대상: 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 협력기관: 교육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 지식출판콘텐츠원,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어울림이글림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 영재교육	- 사업내용: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 진행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언어 교육 등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사업대상: 유아부터 이용 가능 - 협력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열린사이버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hd행복연구소

3. 국외 사례 분석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

<표 3> Hornberger의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

과도기 모델	지속 모델	강화 모델
언어변이 문화적 동화 사회적 통합	언어유지 문화적 정체성 강화 시민권 획득	언어발달 문화적 다원성 사회적 자치권

자료: Hornberger, 1991, 1996; 이재순, 김희재(2016) p. 197에서 재인용.

독일

- 독일 연방법에는 이중언어 관련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연방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다중언어 기반 언어발달 지원을 지속모델에 기반하여 추진
-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중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 중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사례]

-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 교사 및 교육기관, 전문가, 아동 및 부모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이주민 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 아동 연령에 따라 이용준비(Griffberei) 프로그램,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배낭 학교(Rucksack Schule) 프로그램으로 구분

3. 국외 사례 분석

미국

ESSA 법안 마련을 시발점으로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틀을 구축하였으나,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서는 뚜렷한 강화모델로의 확대 양상을 보이지 않음.

[Head Start Act - 이중언어아동의 모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

: 이중언어아동을 위한 평가와 학습지원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절차 실시

전문가가 이중언어아동의 부모가 구사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

모국어 발달 및 읽기쓰기 능력 지원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만

- 우리나라와 다문화가족 형성 배경이 가장 유사
-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변화
- 2016년부터 이중언어 교육 강화모델로의 분명한 전환을 보임.

[주요 추진 정책 및 사업]

- 대만 교육부, 동남아시아 언어 교원 양성 강화
- 동남아시아 7개 국어를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도입
- 2019년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 개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 7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교재를 제공
- 2018년에는 국립교육라디오와 K-12 교육청이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동남아시아어로 방송하는 일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
- 동남아시아어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강화를 개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1. 조사 및 분석개요
2. 분석결과

1. 조사 및 분석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만3세~만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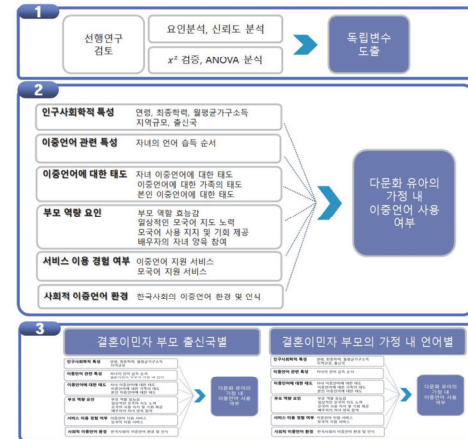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및 정책 욕구, 일반적 양육 특성, 자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방법: 웹조사(CAWI)
- 조사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

분석방법

- 빈도분석, 카이검증, ANOVA 분석 실시
- 요인분석 & 신뢰도분석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및 과정



2. 분석결과

이중언어 사용 실태

<표 4> 가정 내 사용 언어: 본인(응답자), 배우자, 자녀

단위: %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본인	13.4(71)	48.8(259)	25.6(136)	7.3(39)	2.3(12)	2.6(14)	100.0 (531)
배우자	72.9(387)	16.8(89)	5.8(31)	1.9(10)	0.2(1)	2.4(13)	100.0 (531)
자녀	31.6(168)	49.5(263)	13.6(72)	2.1(11)	1.1(6)	2.1(11)	100.0 (531)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하지 않음

: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만 2~3세 이전에 한국어와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_출신국

[베트남]

-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이나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어려움 경험
- 자녀의 베트남 모국어 구사 정도(듣기 2.9점, 말하기 2.7점) 가장 낮음.
-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경험 비율이 가장 큼(63.4%).
- 다른 국가에 비해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를 더 작게,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인식
-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가 가장 부정적
-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부모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2. 분석결과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_출신국

[중국]

-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가 가정 내에서 가장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음(중국 8%, 베트남 17.7%, 일본 33.3%).
- 부모 역할 효능감과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일본]

- 이중언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임.
- 자녀의 모국어 구사수준(듣기 4.0점, 말하기 3.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른 국가에 비해 자녀가 모국어를 더 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응답이 높음.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_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

[자녀가 이중언어 사용 집단]

- 부모가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를 가장 크게 느끼며,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높은 집단임.
-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가장 높음.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 집단]

-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낮음.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에서 특히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
-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2. 분석결과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_결혼이민자 부모 가정 내 일상언어

[결혼이민자 부모가 이중언어 사용 집단]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이중언어 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

[결혼이민자 부모가 한국어 사용 집단]

-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 부모 역할 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_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 수준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국어가 유창할수록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남. 특히 자녀 양육 시 자기 성장 인지 항목이 높음.
- 자녀의 장래에 대한 걱정 정도 낮음.
- 부모 역할 효능감(3.9점) 가장 높음.

[낮은 한국어 구사 수준]

- 자녀의 한국어 습득 어려움은 응답자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 76.5%, 전혀 못하는 경우 75.0%,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58.4% 순으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함.
-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 1순위: 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51.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5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1. 조사 개요
2. 분석결과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5.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1. 조사 개요

조사개요

[조사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 20명, 한국출신 다문화가족 부모 10명

• 면담 방법: 일대일 심층면담

• 면담 질문지,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는 6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동골어)로 번역하여 제공

[면담 내용]
자녀양육 전반, 자녀의 사용 언어 및 언어 습득 과정, 이중언어 구사 환경,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요구

2. 분석결과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범주	내용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지연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자녀 교육 시 어려움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	

지금 저희가 하는 한국어 한계예요. 그 만약에 아이가 잘못하면 “안 돼, 아니야.” 만 하고 있어. 이것 왜 안 돼. 이것 왜 아니야 그런 설명하는 그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면담 13)



육아정책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24

2. 분석결과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범주	내용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 과정에 대한 염려
	모국어 사용에 대한 낮은 동기부여

저는 아기가 베트남어도 잘 배우고 싶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는데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 봤더니 어떤 친구는 이중언어 동시에 시키면 안 좋은 것 같다. 아기 혼란스럽다. 어떤 데는 동시에 시키면 더 좋다. 아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다.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면담 3)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

범주	하위 범주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계획

(일본어로 된 책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아마존 어플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하는 거 사용하고, 일본에서 사요.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의 물건을 그 앱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끔 사요. 산니다. (면담 10)
혼자도 혼자 맨날 교재를 사서 교재 보면서 다시 가르치고, 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베트남어 그 노래 동요 그거 많이 들려주고, 베트남 알파벳 동요도 있어요. 그거 맨날 이렇게 들려주고, 음악 들으면서 또 노래 따라 하고, 또 어느 정도 다음에 오면은 그때도 쓰기 연습하는 거지. (면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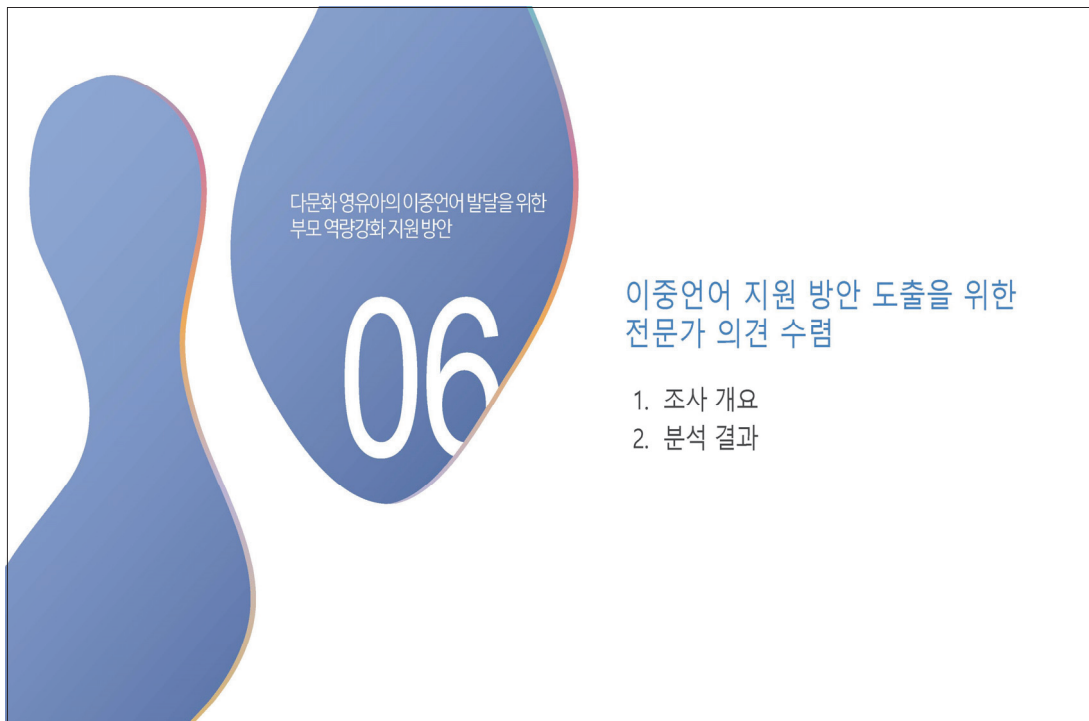
2. 분석결과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

범주	하위 범주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통번역 서비스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아기에 베트남어 동시에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베트남 문화 언제쯤 알려줄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알고 싶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중략)....저는 이중 언어교육 제대로 받고 싶어요. 아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교육 시키야 할지 언어 발달 할 때 예를 들어 26개 월 이때는 이런 단어 하면 좋겠어요. (면담 3)
교육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애들하고 같이 놀면은 그렇게 그런 거를 알려줘 가지고, 애들 하고도 좀 교육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중략).... 대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고, 애기가 말을 잘 안 들을 땐 어떻게 하면 좀 거기 좀. (면담 12)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름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이름도 서비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정책, 무슨 이기는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기 편하고 서비스 이용 받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다 되게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배우자 면담 8)

활동지 같은 거, 책 말고 활동지 같은 거 가지고 단어 배울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줘요. 활동지 있으면 좋겠어요. 이중언어도 제가 수업에 들어가지만 활동재료를 놀이 키트 같은 거 만 줘요.(중략)....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해수면 본인이 좀 부담 는 내도 괜찮아요. 만약에 비용 많이 들어가면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우리 본인 스스로도 일부 부담해도 상관없어요. 얘기 위해서 다 할할 수 있으니까. (면담 18)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6.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조사개요

다문화 영유아 이중언어 관련 5개 전문가 집단 총 42명을 대상 실시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전체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센터장	4	센터장	4
사업담당자(팀장/팀원)	4	사업담당자(주무관)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3
이중언어코치	8		
교육·보육기관		지자체	
유치원 원감 및 교사	5	이중언어 사업 담당 공무원	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6		

- 이메일 설문조사로 실시
- 설문 문항 유형: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 & 구조화된 설문 문항

[조사 내용 구성]

- 이중언어 지원 사업 현황
- 이중언어 지원 사업-정책 인식 및 방안
-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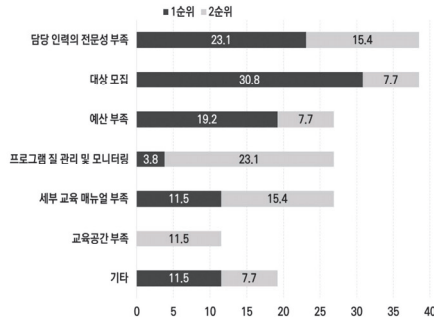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6.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분석 결과

[그림 6]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상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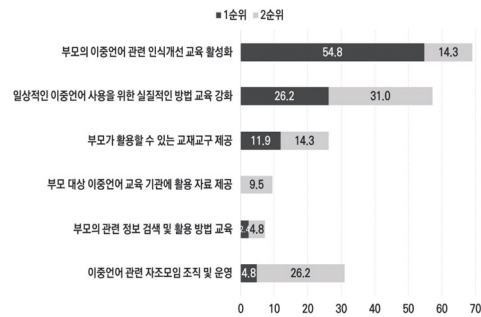
단위: %



주: N=26명(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이중언어코치 등)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7]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 순위

단위: %



주: N=42명(응답자 전체)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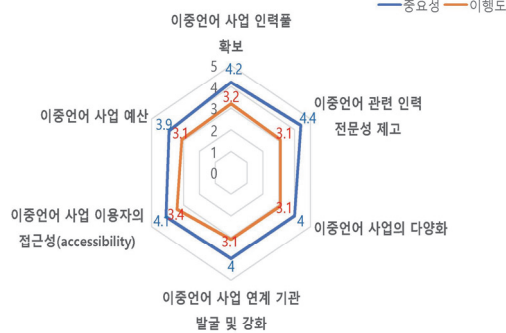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6.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분석 결과

[그림 8]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의 부분별 중요성 및 이행도 평가

단위: 점



주: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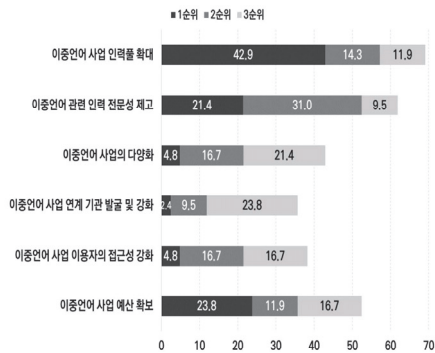
• 이중언어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중요성 평가보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남.

• 현장 전문가들은 이중언어 사업을 수행할 인력 관련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사업 다양화 등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평가

2. 분석 결과

[그림 9]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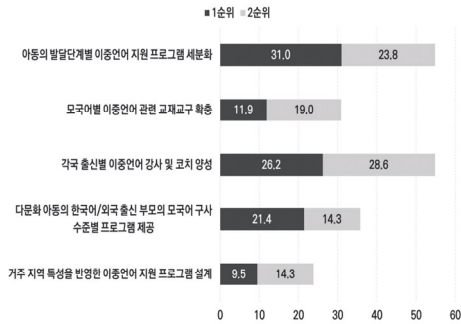
단위: %



주: N=31명(교육·보육기관 종사자 제외)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10]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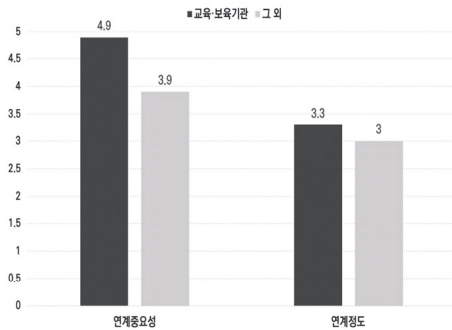


주: N=42명(응답자 전체)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분석 결과

[그림 11] 연계 중요성 및 연계정도 비교: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vs. 그 외 기관 종사자

단위: %



주: 교육·보육기관 N=11명, 그 외 N=31명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수준별 지원 방안 주요 결과

구분	내용
미시적 수준	다문화 아동 -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동기 부여 -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 적용, 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 -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 -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 -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 부모교육 활성화
	배우자 및 가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6.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중범위 수준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교육 강화 -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 양성 - 교육강화: 체계적 교육/재교육,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중앙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후 적절한 배치 - 이중언어 담당 인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 교육,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이중언어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 양성 및 보수 교육에서 이중언어 관련 교육 실시
	기관 연계 - 기관 간 연계 - 부처 간 연계: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교육, 보육기관과의 연계: 인력 파견, 교사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재 및 안내 제공 등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교재교구 개발, 수요에 맞는 교재 교구 배분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 타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리뉴얼 - 지역 특화 프로그램 - 사례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접근성 제고 - 홍보 강화 - 온라인 활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 온라인 강좌 개설

구분	내용
거시적 수준	이중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 다문화 교육 보편화 - 이중언어 관련 우수사례 홍보 및 캠페인 - 이중언어를 사회적으로 이문화하여 중요성 부각 노력
	제도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에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 모국어 능력 인정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 - 인건비 인상 -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 지원, 예산 재분배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7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1. 정책 기본방향
2.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7.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1. 정책 기본 방향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1

**이중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기본방향 2

**생애초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



기본방향 3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내실화**

35

2021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07.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2.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정책과제 1]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앙 기구 조직
- 교육·보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 협의체 구성
-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정책과제 2]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 이중언어 인식 제고 교육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관 확대
- 교육·보육기관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중 이중언어 이해교육 실시

[정책과제 3]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 자녀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자조모임
: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사업

[정책과제 4]
가정 내 이중언어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방안

-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
- 협력 기반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

[정책과제 5]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정책과제 6]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중앙 차원 이중언어강사 자격 기준 마련 및 교육
- 이중언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법 심화 교육

36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

응포친 이중언어코치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정임 원장 (본동어린이집)

장훈성 센터장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준구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 1

응포친 이중언어코치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먼저 토론의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의 논제를 받고, 6개의 정책과제를 확인하면서 이들 6가지의 과제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이들 과제들 중에서 저에게 강력하게 와 닿는 것은 마지막 여섯 번째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본 발표자는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복무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과 그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결혼이민여성분들입니다. 언어교육이 아닌 영유아 자녀를 둔 주 양육자들에게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맞는 놀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법을 코치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즉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주 양육자(보통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자녀와 소통 시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코치합니다. 저는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중언어코치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최선의 목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도 언어발달의 저해 없이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 양육자인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 때문에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하지 못하는 불행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2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하여 언어능력을 배가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유아기 때부터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모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2개의 언어를 동시 습득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영유아기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모국어 사용을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면 아이가 헛갈려서 한국어도 외국어도 못 하게 된다면 한국어가 서투러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함에도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한국어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동거가정에서는 더 심한 간섭이 있습니

다. 특히 어머니가 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낯선 타국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양육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그냥 스스로 아이는 잘 자랄 거라고 믿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에게 영유아와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영유아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도 한국말로...

영유아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소통하는 것은 결국 양육의 단계에서 양육의 어느 한 일부분이지 결코 학령기 아동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아이와 갖가지 놀이를 하며 부대끼며 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도 들어가 있고, 아이의 언어발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소근육 대근육을 자극해서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영유아의 언어발달은 양육과 분리해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중언어 코치로써 프로그램 진행 시,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설명하며, 그 단계에 맞게 놀이를 소개하고 체험하며, 놀이 과정에서 엄마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을 겁니다. 감각인지 발달 놀이, 사회 정서 발달놀이, 의사소통 놀이 활동, 신체 운동 놀이 활동 등등을 하면서 꾸준히 말을 걸고 언어를 자극시키며 교감하고, 감정을 나눕니다. 영유아들은 엄마와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모어를 습득하게 되며 그 언어는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존감 및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참여자 중 중국 출신 한 가정이 있는데, 4살의 아이는 엄마의 어눌한 한국어가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중국인이라 한국어는 못 하지만 중국어는 누구보다 잘한다. 엄마에게 한국어는 외국어라 좀 서투른 것뿐이다. 만약 네가 지금부터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한다면, 너는 아빠만큼 한국어 잘할 수 있고, 엄마보다 더 중국어도 잘할 수 있다.” 아이는 엄마의 이 한마디로 부끄러웠던 엄마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고, 5살에 중국 외가에 가서, 갑자기 중국어가 트이게 되어 현재는 중국 사람만큼 중국어가 능숙하며, 한국어도 능숙한 2개의 모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실행 후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몇 년은 족히 걸립니다. 한 두 달 사이에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빠르면 1~2년, 늦어도 2~3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동이 2개 국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친구의 입에서 다른 친구의 입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굳이 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바로 이중언어 시작하는 가정도 생겨났습니다. 즉, 이중언어 코치는 언어교육이나 교수법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양육전문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양육에 접목 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바로 서

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은 교육의 효과를 의심하고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아놓으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확신이 생기고, 예상되었던 효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언어코치들에게는 양육에 대한 심화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의 언어는 학습이 아닌 습득의 과정이며, 양육자의 꾸준한 소통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보수 교육을 통해, 많은 교수법 및 다양한 자료들도 공급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영유아보육 및 발달단계별 성장발달의 이론적 교육입니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 2

김정임 원장 | 본동어린이집

안녕하세요.

본동어린이집 원장 김정임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아동이 57%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중에는 필리핀1명, 베트남1명, 일본1명이 있는데 결혼이민자로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다문화지정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0여년전 다문화 아동이 한두 명 입소 할 때는 부모님들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차츰 다문화 아이들 입소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언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님들도 언어지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어가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다문화 신입 아동이 입소하면서 다문화 아동 중 한국어가 가능한 아동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더 빨리 적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가까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와 MOU협약을 맺어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도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면 부모님들 접근성이 좋아 참여도 많이 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 교육 시 한국어와 이중언어가 능통한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아 멘토 멘티로 활용하면 멘토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멘티가 도움을 받으며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이주여성 단체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 수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의상체험, 악기체험, 전통놀이,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다른 언어로 인사 말도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아이들이 수업을 기다리며 즐거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이 수업과 연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다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부모님들은 여러 나라 의상을 입고 패션쇼도 해보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체험하며 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설명해주었고 여러 부스를 체험하고 스탬프를 많이 찍어오면 선물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들보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출신국별 자조 모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특성상 중국 다문화 가족이 많지만 타구의 경우들은 다문화 아동이 없는 원도 있고 한원에 같은 출신국 아동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 센터와 MOU를 맺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협조를 구해 출신국별 부모님들을 모아 지역이나 권역별로 나누어 조를 구성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통역사를 모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양육에 대한 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가족 놀이(모국의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모국어 책 읽기 또는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아빠 교육, 엄마 교육, 조부모 교육 등 월별로 주제를 다르게 계획하여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 지면 출신국별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중언어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부모님들이나 친인척,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조 모임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교육자료와 놀이교구, 문화자료, 교육학습지 등을 제공해주며 정보도 꾸준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법무부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제발표에서 정책제안을 하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앱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중앙에서 정보를 총괄하고 각 센터와 연계하여 기존 센터 교육 기반을 활용해 이중언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부모교육, 한국 문화 알기, 다문화 교사파견, 연령별 주제별 견학 할 곳, 역사가 있는 여행지, 가까운 다문화센터 찾기 등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 없이 도움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많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사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만0세 484,000, 만1세 426,000, 만2세 353,000, 만3세 430,000, 만4세 411,000, 만5세 411,000 현재 경
기도는 전액 지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통은 만3세 (우리 나이로 5세)가 되어 입소를 하게 되는데 또래 간 집단활동이 늦게 시작되어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다소 보이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국 아동과 어울려 함께 놀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다문화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 외국아동 무상보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동들과 차별받지 않게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나 교육기관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 3

장흔성 센터장 |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교육적 성장에 있어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지는 이주배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부나 여가부가 자녀의 교육적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맞춤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의 활발한 언어적 자극은 아동의 이해력과 창의적 사고력, 나아가 학업 성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어가 부족한 부모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토론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역량 지원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 시행될 것이라 기대하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주제발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언어 및 모국어 사용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친밀감 형성, 아동의 정체성 및 사회 정서적·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모국어 유지가 학업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한다. 이중언어 사용이 부적응 및 병리적 접근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 방식이며, 강점과 자원을 구체화하고 자원을 발굴하며, 자원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서비스 초기에는 이중언어 사용이 한국어 인지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언어발달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중언어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불어 국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어는 대부분 언어적 지위가 높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기에 이중언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장흔성, 2018).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만 2~3세 이전에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대부분 이 시기에 어머니는 입국 초기에 해당되어 한국어 사용능력의 한계로 이중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학령기에 진입하면 이중언어 사용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 이유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이 교육적 접근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의 전문성, 지속성 등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단편

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중언어가 사적 언어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아동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베트남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 이 분석에는 의문점이 든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모국에서의 한 자녀 정책이 주는 자녀 교육 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이에 중국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북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거주자 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신청자와 캠프 신청자는 중국 결혼이민자 자녀의 수가 2배로 높다. 국내 결혼이민자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비율은 모국의 경제적 위상과 인지도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결혼이민자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이 반증 될 수 있다.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과 지원요구의 분석 결과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부모의 경험 및 요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중언어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적합한 분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 수준별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미시적 수준, 중 범위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잘 녹아내고 있다. 제안사항을 토대로 향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정책 방안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6가지는 유아기 이중언어 사용의 활성화와 부모 역량강화에 있어 매우 적합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정보접근과 교재교구 개발의 부족은 이중언어 사용과 확대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6가지 정책 과제 중 이미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당사자를 국한하여 이중언어 인식교육과 언어 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연구자가 제안한 교직원의 이중언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는 내년부터라도 경북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중언어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경북도의 이중언어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도내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이중언어 환경조성과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부모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높여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강점강화와 학업능력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3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학년 이상의 아동 중 중급과 고급, 자격증반은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2주간 이중언어 몰입 캠프와 격년제로 중국과 베트남 현지 대학에서 2주간 엄마나라 언어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매 캠프 때마다 3

시간 부모교육에 참석하여야하는 필수 조건이 있다. 중·고급반 참여자의 부모들은 다양한 영역의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언어의 필요성, 중요성, 글로벌 인재로서의 가능성, 자녀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소통과 정보제공, 자녀의 진로탐색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부모들에게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욕구조사를 시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부모들도 참여도와 적극성이 높아진다. 코비드 상황인 현재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 이중언어 교육의 일련의 사업비는 65억의 ‘다문화기금’의 재원이다.

경북의 23개 지자체에서 이중언어 환경을 폭넓게 조성하고 교육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의 6개국 276명의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고, 해마다 30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 및 역량이 강화된 이중언어 강사들은 경북도에서 17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글로벌인재양성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 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무상으로 이중언어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고 교육의 상시화로 인해 방학이면 외가나라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 가기도 하고, 단기 언어 유학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적극적 지원도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언어 사용의 홍보와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경상북도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대회를 7회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다문화가족자녀이중언어대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상격은 여성가족부장관상이며 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 지역에서 시행하는 대회이지만 참여자가 최 다수이다.

이중언어 사용이 가정 내 사적 언어로 국한되어진다면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의 강점을 인정받는 길은 요원 할 수밖에 없다. 21년 2학기부터 경상북도 교육지원청과 이중언어 강사들이 한국어 학습언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해 알림장과 학습계획을 번역하여 학부모 카톡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13개국 언어로 276개 학교의 560명에게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만족도가 높아 22년부터는 병설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기관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인정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중언어는 엄마와 나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사적 언어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중언어 사용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강점의 언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때 활성화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다문화 영유아기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방안’의 세미나를 통해 이중언어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 수립되기를 희망하며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 4

이준구 장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다문화학생 유형

-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을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한다.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

□ 다문화학생 현황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2021.4.1. 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초등학교	422,293	13,067	3.09	409,594	12,938	3.16	397,900	13,093	3.29
중학교	207,413	3,128	1.51	209,809	3,401	1.62	209,081	4,049	1.94
고등학교(각종)	239,926	1,734	0.72	224,709	1,962	0.87	215,044	2,226	1.04
계	869,632	17,929	2.06	844,112	18,301	2.17	822,025	19,368	2.36

교육지원청별 현황

(2021.4.1. 기준)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다문화 학생수	1,561	1,892	5,211	1,191	1,472	1,372	1,671	563	1,733	1,325	1,377	19,368
비율(%)	8.06	9.77	26.91	6.15	7.6	7.08	8.63	2.9	8.95	6.84	7.11	100
전체 학생수	51,990	93,335	75,509	85,382	43,366	105,253	101,314	103,449	57,344	47,533	57,550	822,025
비율(%)	3.00	2.03	6.90	1.39	3.39	1.30	1.65	0.54	3.02	2.79	2.39	2.36

교육지원청별 현황

(2021.4.1. 기준)

구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	계
학생수	1,394	6,245	3,661	198	702	1,210	3,323	174	71	330	2,060	19,368
비율(%)	7.2	32.3	18.9	1	3.6	6.2	17.2	0.9	0.4	1.7	1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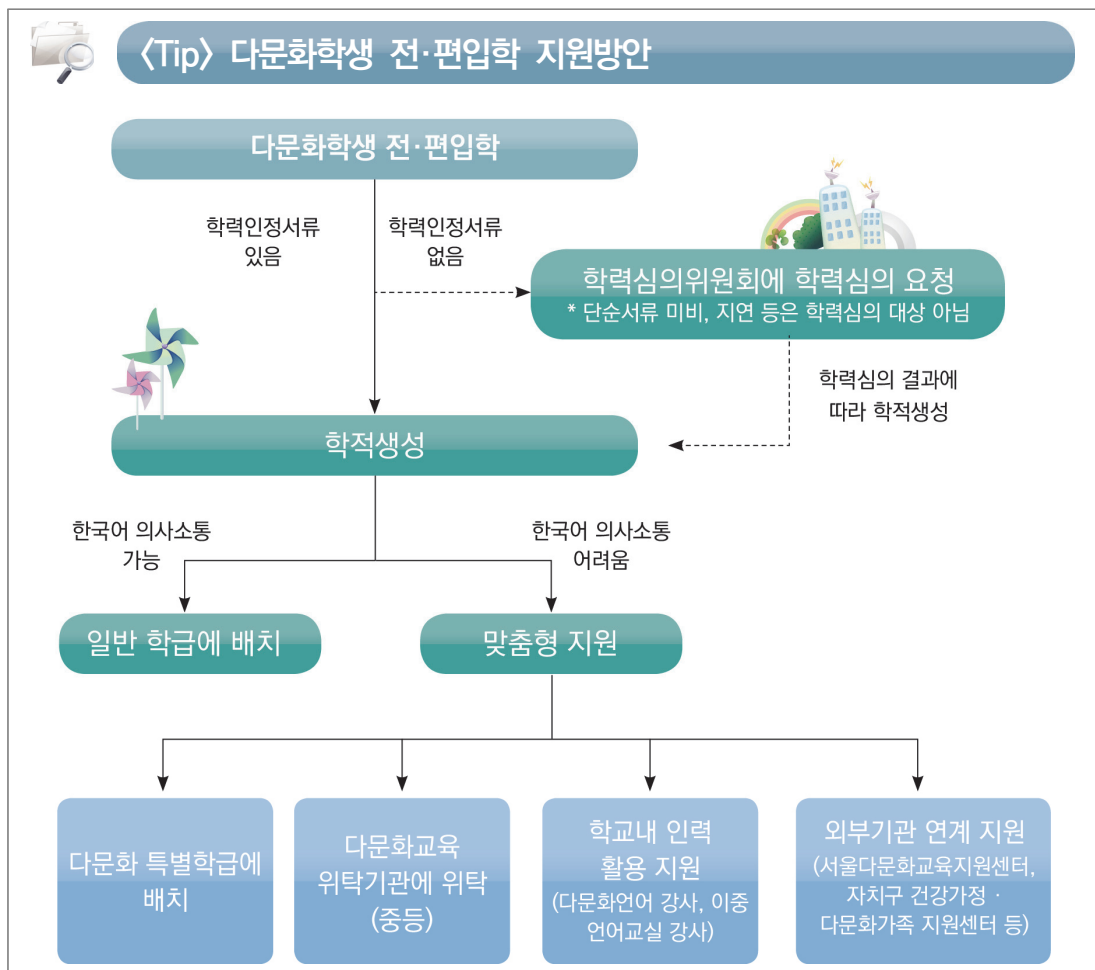
* 미국 328명, 러시아 243명, 유럽 188명, 아프리카 140명, 캄보디아 333명, 기타 619명

□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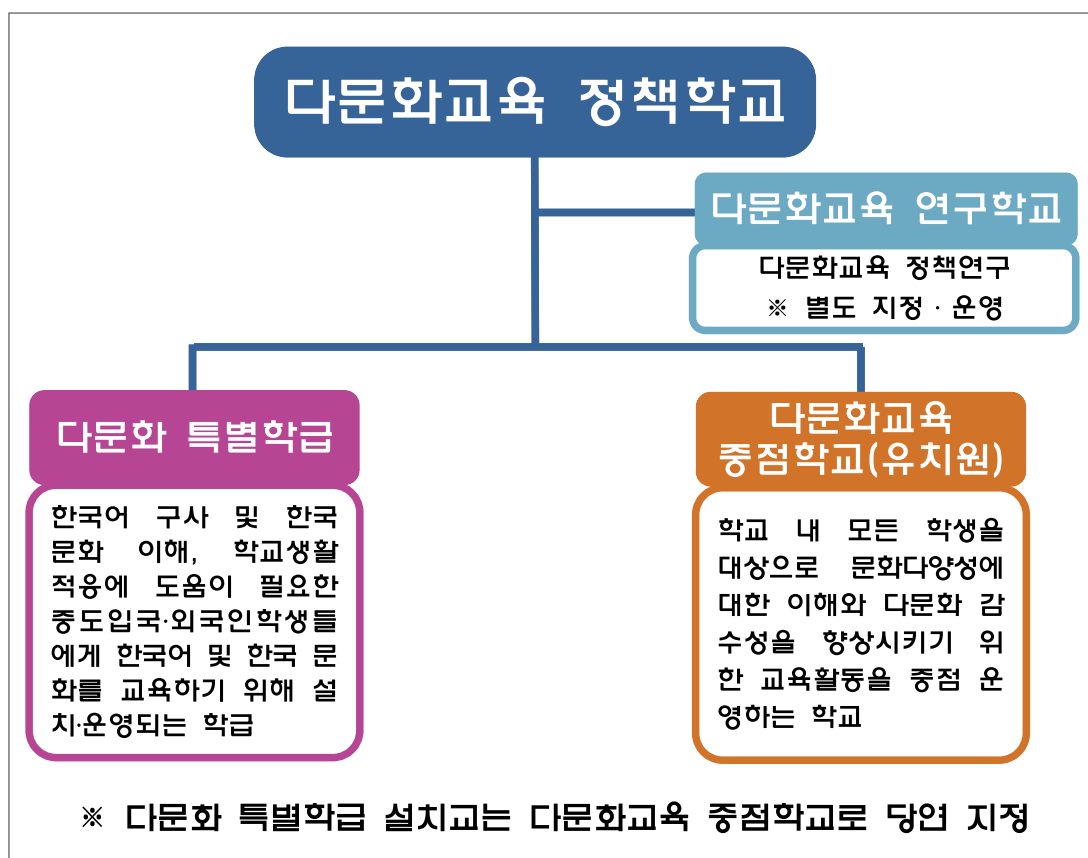
- 학령기 아동에게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학령기 아동에게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Tip〉 다문화학생 전·편입학 지원방안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개념도



○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천

○ (대상) 유치원 9원, 초 49교, 중 12교, 고 4교, 총 74교 ※ [부록 1-1] 참고

구분	유	초	중	고	계	비고
다문화 특별학급		19*	4**	1	24	* 19교, 20학급 ** 대안교육위탁기관 2교 포함 *** 대안교육위탁기관 1교 포함
다문화교육 유치원중점학교	9	25	8***	2	44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5		1	6	
합계	9	49	12	4	74	○ (운영기간) 2021. 3월 ~ 2022. 2월

- (다문화교육 유치원)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운영
- (초·중·고) 교과수업에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요소를 반영하고, 프로젝트수업 형태로 지속성 있게 다문화교육 실시
 - 단순 문화체험 지양, 다문화학생과 비(非)다문화학생이 함께 활동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 다문화학생만 분리하여 교육하지 않도록 유의
 - 자치구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자원 적극 활용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성과분석 및 결과환류를 위해 정책학교 효과성 조사 및 한국어학급 만족도 조사 실시

□ 모든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 (목적)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 (강사배치) 단위학교 이중언어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 교실 강사 배치

구분	다문화언어 강사	이중언어교실 강사
주요 역할	• 다문화학생 한국어 및 이중언어 지도 • 다문화학생 언어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모든 학생 대상 이중언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등	• 일반교과 수업 Co-teaching •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특별과정(KSL과정) • 다문화학생 교과학습 멘토링 등
자격 조건	(기본 조건) • 대졸 이상 학력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서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서울교대 교육연수원 연 900시간) (우대 사항) • 교원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학) 관련 전공자 •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자 등	(기본 조건) • 한국인(국적법상)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외국인 중 E-2, F-5, F-6 국내체류자격 소지자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학교 교과수업 보조 가능자이면서 다음의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춘 자 • (한국인) 공인 외국어 상급 이상 소지자 • (한국인) 해당 언어국 4년제대학(원) 졸업자(전공 불문) •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자 • (외국인) 국내 4년제대학(원) 졸업자(전공 불문) (우대 사항) • 교원자격증(한국어강사) 소지자 • 해당 언어 의사소통 우수자 등
배치 절차	• 교육청 채용 후 학교 배치(전일제 근무) ※ 2021학년도 다문화언어 강사 선발지원 계획 및 신청 알림	• 학교 자체 채용(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 2021학년도 이중언어교실 운영 신청 안내

